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4월 후원미사는 17일, 5월 후원미사는 15일, 6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2월 후원회원

##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총액	25,906,034	전월이월금	7,451,327
지     로	3,040,490	우리은행	5,851,677
국민은행	4,384,000	하나은행	1,186,000
조흥은행	100,000	신한은행	1,185,000
외환은행	432,500	제일은행	185,030
농     협	1,290,000	기업은행	275,000
우     체   국	55,010	자정기탁	47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어린이집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제전비
	남미공동체	제전비
	소 계	10,5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운영비 등
자정기탁금	자정기탁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0,780,000
	잔액(이월금)	5,126,034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펴낸날 2017. 3.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의 끝자락에 변덕스럽기만 하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의 한가운데 우리는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켜 생각해보면 사순시기는 항상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였습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목표들이 막 허물어지기도 하는 시기여서 더욱 그러하였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 신자분들과 동료사제들과 함께 많은 결심들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했던 결심들을 생각해보면 금연하기, 매일 성경읽기, 매일 선행하기 등등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금연하기, 내가 의지적으로 술안마시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순시기는 어쩌면 얼마나 내가 강한 의지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기라기 보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 속 깊이 깨달아야 하는 시기인 듯합니다. 그동안 이웃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둔감했고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한 끼의 금식에도 소소한 간식을 찾고, 조그마한 무례함에도 치를 떨며, 품었던 좋은 마음이 얼마나 금새 허물어지는지를 깨닫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가 아닐런지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섭리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일 것입니다. 문득 복음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열정 가득 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개 푹 숙이며 고백하던 베드로의 모습말입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사순시기에 어떠한 결심들을 하셨는지요? 부디 그 결심들을 통해 우리들의 의지와 확고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의 주도권이 우리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은총의 사순시기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동체 소식

### 필리핀공동체 유아세례 소식\*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83.6%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1521년 마젤란이 사마르섬에 첫 발을 내딛고 세부에 도착해 전교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신자들은 생후 한 달 안에 유아세례를 받고 아이의 부모가 성당에 가서 등록한 다음 2~3시간에 걸친 교육을 받습니다. 필리핀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신앙적 본보기가 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도 20명까지 대부모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의 보호와 기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 베다니아의 집 소식\*

베다니아의 집은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진료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환우쉼터로 국가 지원 없이 후원회원분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국의 가족과 떨어진 채로 환경과 음식이 바뀌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외로운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휴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환자가 아닌 경우도(난민, 집을 잃은 외국인 모자와 족 등) 쉼터의 사정에 따라 입소하여 머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돋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몽골, 태국, 아르헨티나 환우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무항문증으로 태어나 장루 수술을 받고 퇴원한 태국아기와 엄마도 함께 요양하고 있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졸업식 소식\*

베들레헴 어린이집 졸업식이 2월 24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제10회 졸업을 맞이하여 그동안 어린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졸업하는 어린이들이 수녀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도 그동안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아주민 혹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입소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점차 많은 성장과 다문화가족 2세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합니다.



### 이주사목위원회 공동체별 미사시간

공동체	미사 시간	장소	집전사제
베트남 공동체	매주일 12:00	베트남공동체 공소	Fr. 하오
남미 공동체	첫째, 셋째 주일 16:00	역곡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둘째, 넷째 주일 11: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과달루페 선교회
필리핀 공동체	매주일 13:30	혜화동 본당	Fr. 알프레도
태국 공동체	매월 둘째 주일 16:3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Fr. 이한울
몽골 공동체	매월 셋째 주일 11: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Fr. 남창현
중국 공동체	매월 첫째 주일 11:00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Fr. 정중리

## 문화알림

### ABOUT Cambodia 캄보디아\*



- 수도 / 프놈펜
- 종교 / 불교(95%), 기타(5%)
- 기후 / 고온다습, 열대몬순 기후
- 인구 / 약 1,570만명(세계 68위)
- 기념일

- 1월 신년(1일)  
학살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의 날(7일)
- 2월 석가탄신일(11일)
- 3월 국제 여성의 날(8일)
- 4월 설날(14일~16일)<sup>1)</sup>
- 5월 노동자의 날(1일)  
석가서거일(10일)  
시하모니 국왕 탄신일(13일)  
왕실 농경의 날(21일)<sup>2)</sup>
- 6월 어린이날(1일), 전 왕비 탄신일(18일)
- 9월 추석(19일~21일)<sup>3)</sup>  
제헌절(24일)
- 10월 시하누크 전 국왕 추모일(15일)  
시하모니 국왕 즉위 기념일(29일)
- 11월 물축제(2일~4일)  
독립기념일(9일)<sup>4)</sup>
- 12월 국제 인권의 날(10일)



#### 1) 설날(4월 14일~16일)

설날을 새해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쫄츠남'이라고 한다.  
'츠남'은 새로운 해, '쫄은 들어간다는 뜻이다.

1년 동안 캄보디아를 보살펴 준 신을 떠나보내고 올해의 신을 맞이하며 쫄츠남의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물을 뿐 리고 맞아주면서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 2) 왕실 농경의 날(5월 21일)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로 캄보디아 국왕이 성스러운 소들과 함께 앞에서 들판을 갈으면, 여왕이 뒤를 따르며 씨를 뿌리면서 진행된다. 국왕이 들판을 엄숙하게 세 번 반복해서 길면 신하들은 왕실 소들을 물고 가. 일곱 개의 황금 징반에 각각 담긴 쌀, 옥수수, 녹두, 침깨, 콩, 갓 자른 풀, 물과 쌀로 빚은 술을 담아 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왕실 점성술가들은 황소가 먹은 것을 살펴본 후, 질병, 홍수, 풍작, 폭우 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고 한다.

#### 3) 추석(9월 19일~21일)

추석을 '프춤번'이라고 하는데 '프춤'은 모으다(함께), '번'은 쌓아놓은 밥 무더기(쌀을 공양한다)라는 뜻이다. 조상의 영혼을 기도하기 위해 밥 무더기를 만들어서 15일간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언제든지 절로 가지고 와서 바치고, 절의 승려는 그 음식을 받고 그 가족의 죽은 조상의 영혼과 자손을 위해 복을 불어준다. 공식적인 휴가는 3일이지만,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은 프춤번 기간 전후로 약 2주를 쉬기도 한다. 죽은 조상들이 찾아와 머무는 기간이 2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은 부모와 친척, 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비친다.

#### 4) 물축제(11월 2일~4일)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시기를 알리는 캄보디아 물 축제로 '본 옴 툭(Bon Om Touk)'이라 한다. 본울뚝 축제는 캄보디아에서 설날과 함께 최대의 명절로 손꼽히며, 국왕까지 직접 나와 참가하는 국가적 규모의 축제이다. 캄보디아 주요 강(江)에서 수백 척의 배들이 경기를 펼치는 보트 대회는 최고의 불거리이다. 12세기 말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침족이 자야바르만 7세와의 해상전에서 패하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은 그 날의 승리를 기원하고 자야바르만 시절의 번영을 회상하기 위해 매년 물 축제를 연다. 그 외에도 쌀농사에 필요한 풍부한 물을 위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물 축제 기간에는 많은 현지인들이 쫄불을 단 종이배를 만들어 강물에 띄우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 한국 내 캄보디아 이주민 통계 \*출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97,783명 중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37,785명으로 6.3%를 차지하며,

국민의 배우자 체류 외국인 총 152,374명 중

캄보디아 출신은 4,473명(남자 61명, 여자 4,412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